

“김장은 광주에서 해야겠네요”



수도권 호남미래포럼 회원 김치타운 찾아 남도 배추·고춧가루 등 재료 최고맛 선사 ‘김장문화 체험투어’ 15일까지 참여 가능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향우로 구성된 호남미래포럼 회원 120명이 지난 1일 광주김치타운을 찾았다.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다.

남성 회원이 상당수인 이들은 서툰 솜씨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김치를 담갔다. 절임배추와 김장 속 양념은 광주명품 김치사업회사인 남도 소비자시민모임 자원봉사자 등이 준비했고, 양념 속을 채워 넣는 손쉬운 과정만으로 남도 김치를 완성할 수 있었다.

물론 이날 준비된 김장재료는 모두 최상품으로 구성됐다. 김치의 기본인 배추는 광주와 함평 등에서 계약 재배를 통해 키운 남도 배추만 선별했다.

절임배추는 신안군에서 공수받은 천일염을 사용했고, 고춧가루와 각종 젓갈류도 국내산 최고급만 넣었다. 조미료는 단 1g도 안들어 갔다.

맛은 당연히 최고 수준이다. 최상의 재료에다 매년 열리는 광주세계김치문화축

제를 통해 배출되는 김치명인들의 레시피까지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날 자신의 직접 담근 광주 김치를 맛본 한 체험객은 “배추가 아삭아삭 식감이 좋고 양념 맛도 일품”이라면서 “앞으로 김장은 광주에서 담가야 겠다”고 만족감을 표실했다. 이날 호남미래포럼 회원들은 1200여만원을 들여 3500kg의 김장을 했다. 이 김치는 택배를 통해 참가자들 가정으로 보내졌다.

광주시가 김치시장 개척을 위해 운영중인 ‘김장문화 체험투어’가 인기다.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월까지 진행되는 김장문화 체험 투어는 버스를 이용해 광주를 방문한 뒤 직접 김장을 담그는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수도권과 영남권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지금까지 26회에 걸쳐 850명이 참여해 1만5000kg의 김장을 담갔으며, 마감일인 4일까지 예약이 짙 차 총 참여인원만 1200명에 달하는 김치량만 2만kg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체험객들이 담근 김치는 전국 어느 곳이든 무료 택배가 가능하고, 어려운 이웃에 김장 기부도 할 수 있다.

광주시가 제공하는 전세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김장문화 체험투어는 4일까지만 진행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는 15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행사기간에 방문하면 김장 10kg에 3만5600원만 내면 된다. 또한 김치 담그기에 서툰 주부 등을 대상으로 맛갈스런 남도 김치 담그는 법도 전수해 준다.

광주시는 김장문화 체험 투어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고, 예약자들이 폭증함에 따라 내년에는 관련 행사 규모와 일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준 광주시 식품산업담당은 “김장하면 광주를 떠올릴 수 있도록 김장 담그기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김치 종주도시 광주의 명성을 지켜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대책

시, 수거시간 3시간 연장 구형별 기동처리반 가동

광주시는 2일 “김장철을 맞아 채소류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거 시간을 평소(오전 6시~오후 3시)보다 3시간 연장한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해 음식물쓰레기가 적체되거나 수거되지 않는 지역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마다 기동처리반이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단독주택은 12월 한 달 동안 휴이 묻지 않은 깨끗한 채소류만을 담아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경우 수거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주택은 현재와 같이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장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고추씨, 채소류 뿌리, 굴껍질, 동물뼈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 UN ISDR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 만들기...’ 가입

광주시는 2일 “국제연합 재해경감전략기구(UN ISDR)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공약 사항인 ‘안전한 푸른 도시’ 조성의 하나로 10월 UN ISDR과 협약, 가입 승인을 받아 국제적인 재난안전도시 동참을 공식화했다.

UN ISDR은 홍수, 산사태,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을 줄이기 위한 국제기구로, 가입 도시는 기

후변화 대응에 대한 재해경감 기법과 매뉴얼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 시민단체, NGO,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해경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재해경감 대상 예산 확보와 실행, 재해위험 경감 분석 평가 등을 실천하게 된다.

현재 광역 지자체 중 광주시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 등 8개 도시가 UN ISDR에 가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시청서 공예명장 작품전 6일까지 회원전도

광주공예명장의 작품과 지역 우수 공예품이 시정 1층 시민홀에서 선보인다.

광주시는 “6일까지 시정 1층에서 광주공예명장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예명장전’과 광주지역 공예단체 회원 120여 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木/金/土/色/紙’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공예명장은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된 제도로, 2013년에는 고정주(금속), 박영기(목공),

오석심(종이)씨에 이어 올해는 정종구(목공), 한경희(종이)씨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그동안 각 단체별로 전시해온 광주·전남목조형협회, 광주한지조형작가회, 광주섬유공예가회, 광주금속공예가회, 광주여유생활도자회, 흙의마음, 한국심지공예가회 등 지역 공예단체들이 처음으로 연합해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에이즈예방 캠페인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인 지난 1일 광주시 5개구 보건소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광주지회가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에이즈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기 100곳 강소기업으로 키운다”

시, 자금·컨설팅·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키로

광주시가 앞으로 3년간 100개 중소기업을 명품 강소기업으로 키운다.

시는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 지역경제를 견인할 명품강소(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2일 밝혔다.

명품 강소기업은 성장 의지와 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다.

시는 올해 30개 기업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100개 기업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이 강소기업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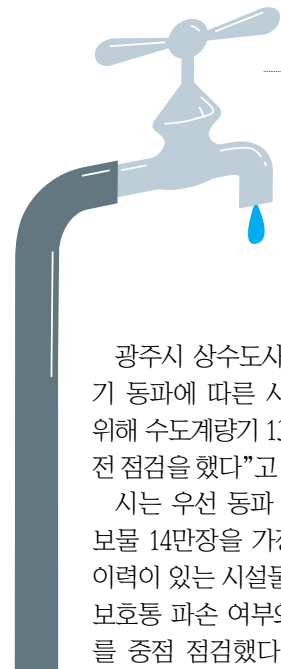
자금 지원, 종합경영진단 컨설팅, 각종 기술과 마케팅 지원, 기업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등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업별 담당 코디네이터를 배정하고, 시 담당 공무원이 일대일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본사를 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다. 또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매출액 등 성장성, 성장 목표와 전략, 혁신 역량과 잠재력 등을 심사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김정대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광주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라며 “작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해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명품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문의는 광주테크노파크(062-602-7213)로 하면 된다. /최희종기자 chae@



수도계량기 동파 막아라

시 상수도사업본부, 13만6천개 사전 점검 마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일 “계량기 동파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 13만6000개에 대해 사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올해는 동파 취약지역인 구도심과 도심 외 지역, 공사 등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보호통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

고 노출된 수도관이나 물탱크 및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현옷 등으로 잘 덮어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각 지역 수도사업소나 국번 없이 121번, 휴대전화 062-121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6,000원)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성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착한 소장수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박리대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이익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 프랜차이즈 손님들께 특별한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고품질 결혼정보회사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아티스트,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4명 010 56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